

 산업통상자원부		보도자료		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	
http://www.motie.go.kr					
2019년 11월 1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3.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19. 11. 12.(화)		담당부서	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	
담당과장	김숙래 과장(043-870-5390)		담당자	류지영 연구사(043-870-5395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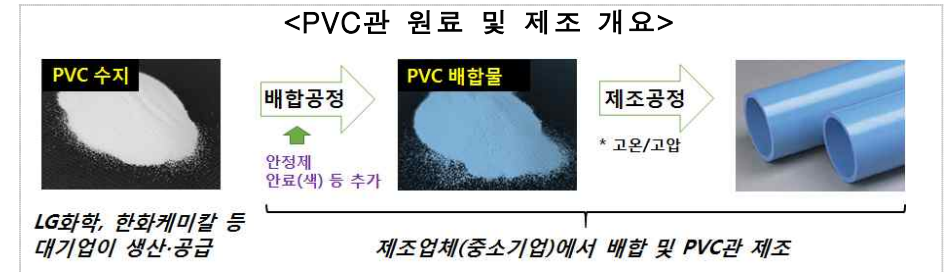
PVC관 품질 향상 위해 대·중소기업, 시험·인증기관 정부 힘 모아 - 「PVC관 품질개선 세미나」 개최, LG화학·한화케미칼 전문가 참여 -

- PVC관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시험·인증기관, 정부가 함께 나섰다.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이승우 원장)은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(장호윤 이사장)과 함께 PVC관 생산업체의 품질개선을 위한 「PVC관 품질개선 세미나」를 11월 13일 개최했다.

< PVC관 품질개선 세미나 개요 >

- (일시/장소) 2019.11.13.(수) /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(서울 여의도)
- (공동주최)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,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- (후원) LG화학, 한화케미칼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한국표준협회, 한국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
- (참석자) PVC관 생산업체(CEO 및 품질관리담당자), 관련 시험·인증기관 등 90여명
- (주요내용) KS인증제도 소개, PVC 원료의 특성 및 제조공정·품질개선 방법 이해, 품질관리 우수사례 및 중소기업지원 R&D 사업 소개 등

- 상수도, 하수도관 등으로 사용되는 PVC관은 국내 약 60개 중소기업이 대기업(LG화학, 한화케미칼)에서 PVC 수지를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는데 PVC관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.



- 이 날 세미나에서 국토원은 PVC관 KS인증제도를 소개하며, 불량 PVC관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고,
 - 불량 제품 제조업체에게는 KS인증취소, 표시·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.
 - 또한, 수도용 PVC관의 장기적 물성기준 강화를 위해 장기내구성*을 KS에 도입했으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 기준을 유예하여 '22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,
- * 장기내구성 시험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
- 업체의 시험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이 시험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등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했다.
- 대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은 PVC 원료 특성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공정관리 기법과 품질관리 노하우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PVC관 제조업체에 전수했다.
 - PVC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인 LG화학과 한화케미칼에서는 PVC관 품질향상을 위한 원료 및 제조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량유형 및 해결방법을 전수했다.
 - 학계 고분자화학물 전문가는 PVC관에 요구되는 각 성능항목*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서, 업체의 사내 관리 기준값은 KS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* 내압성(높은 압력에 견디는지 확인), 인장 항복 강도(재료의 단단함을 측정) 등

□ 참석자들은 PVC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
○ 수도권을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품질관리 우수업체(PPI평화(주))는 사례발표를 통해 국제·국가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사내품질관리를 한다면 PVC관 업계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.

○ 특히, 장호윤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“PVC 업계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에 매진해야 한다”면서 “빠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반드시 쇠신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□ 전문가로 참석한 목원대 계형산 교수는 “PVC관은 단단하면서도 가볍고, 부식저항성 등의 장점이 있어 염분이 있는 토양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”며 “업계가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앞으로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
□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“정부와 조합, 기업, 시험·인증기관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PVC관 품질 향상을 위해 함께 모였다”면서,

○ “정부의 철저한 시판품조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업계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으므로,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”고 말했다.

참고

세미나 일정표

□ **공동주최** :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,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
□ **후원** : LG화학, 한화케미칼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한국표준협회, 한국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

□ **일시/장소** : '19.11.13(수) 10:00~16:30/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

□ **참석대상** : PVC관 생산업체 CEO 및 품질관리담당자

일정표

시 간	내 용	발 표 자
09:30~10:00	등록 및 안내	-
10:00~10:20	인사말씀	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, PVC관조합 이사장
10:20~10:40	PVC관 KS인증제도 소개	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유수열 사무관
10:40~11:00	수도용 PVC관 장기내구성 도입 현황	국표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
11:00~11:30	PVC 원료의 특성과 제조공정의 이해	한화케미칼 심기조 선임연구원
11:30~12:00	주요 제품 불량 원인 파악 및 해결 방법	LG화학 오승원 책임연구원
12:00~12:50	PVC관의 설계/시공방법 연구용역 결과 발표	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명식 선임연구원
12:50~14:00	점 심	-
14:00~14:40	PVC관의 성능항목별 품질기준 (KS 등)의 이해	목원대 계형산 교수 *한국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장
14:40~15:10	품질관리 우수사례 발표	PPI평화(주) 홍석원 부사장
15:10~15:30	커피 브레이크	-
15:30~16:00	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소개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강혁구 주임연구원
16:00~16:30	PVC업계의 품질향상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	조합 전무이사(사회)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(☎ 043-870-53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